

지역 매 아리

“일자리 창출 행정력 집중”

완주군, 위생안전 강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강화

완주군이 위생안전 강화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완주군은 지난 28일 15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와 유통식품 표시기준,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식품수거 및 검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판매업소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먹거리정책과 위생안전팀 주관으로 중점 지도도점 사항, 활동요령 등이 교육됐다.

박노웅 식품위생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식품점검업소 방문 시 감시원이 중점 지도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설명과, 감시원 업무 및 활동요령, 주요 개정 법령,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요령, 위해식품 식별요령 등, 점검 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이번 강의를 통해 위생 점검의 기본요령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세히 알게 됐다”며 “식품위생업소 점검 시 정확한 지도와 지도요령,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식품 위생업소에 대해 보다 유익한 식품안전 정보 및 예방홍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 2단계 현장 간담회’ 개최

완주군이 민선 7기 2년차의 최대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설정하고 기업투자 유치 등 대장정에 시동을 걸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지난 28일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테크노밸리 제2단계 조성사업 현황을 방문, 출자회사와 감리단, 시행사, 완주테크노밸리(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완주군은 국내의 경기가 하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새로운 1년의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지역경제의 심장이 될 완주테크노밸리 2단계 현장 간담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완주테크노밸리 이석봉 대표이사로부터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경과보고를 청취한 후 군 관계자로부터 향후 투자유치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군수는 현장 간담회에서 향후 첨단기업 유치로 15만 자족도시 실현의 주축이 될 완주테크노밸리 제2단계의 희망찬 비전을 강조했다.

박 군수는 “완주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완주테크노밸리(주)와 출자회사, 감리단, 시행사 등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다”며 “군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특히 이 자리에서 “민선 7기 2년차부터는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하게 밝혔다.

완주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96개의 차세대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1만4525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를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 28일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테크노밸리 제2단계 조성사업 현황을 방문했다.

통해 1조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3조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8500여 명의 인구증가 효과도 예상된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완주산단의 사통팔달 입지와 최적의 투자 인프라를 적극 홍보해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과 기업 유치로 조기에 분양을 완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간 투자유치 추진단과 공무원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공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서서 한편 산업단지 입주업체 다양화와 투자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 등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자극할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보건소는 지난 28일 상반기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수료식을 가졌다.

“내 건강 지키고 주변사람 건강도 챙겨요”

김제시 보건소, 상반기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수료식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 예방관리를 위해 매일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실시해 온 상반기 고혈압·당뇨 건강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해 지난 28일 수료식을 가졌다.

상반기 건강교실 수료식에는 70여명의 주민이 참가하였으며 이중 한 번도 빠지지 않은 31명의 우수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하였다. 상반기 건강교실은 2월 14일에 개강하여 총 10회 운영하였으며, 기초 혈액검사(혈당, 당화혈색소 등)를 비롯하여 뇌졸중 발생의 주요원인인 심방세동 선별검사를 실시하였다.

상반기 동안 고혈압, 당뇨병의 이해와 증상관리 및 증상대처요법, 운동방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상반기 건강교실 수료식에서는 그동안 진행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뇌졸중·심근경색증 바로알기’를 주제로 하여 질환의 개념, 증상 및 대처요법의 그림을 색깔하며 다시 한번 중요내용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수료기념품을 수여하여 건강교실 대상자들에게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당부하며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수료식을 마무리했다.

김제시 보건소는 하반기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7월부터 매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1층 회의실에서 고혈압·당뇨 건강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관련 만성질환의 예방과 올바른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김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구면 복지기동대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

김제시 금구면(면장 서재영) 복지기동대(대장 권혁운)는 지난 28일 관내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독거노인 2세대를 방문해 마당 제초작업 등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를 전개했다.

복지기동대원들은 여름철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를 벌·모기 등 유해곤충이 많이 출몰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제초작업을 추진하고, 집안의 각종 쓰레기 수거 및 오래된 현관등을 교체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온 힘을 쏟았다.

이들의 봉사로 집 주변의 모기 등 유해 곤충들은 많이 사라졌으며, 집 안의 생활환경도 쾌적하게 변화되었다. 또한, 집 안까지 안전하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구간을 만들어 진드기 등으로 인한 어르신의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SNS이벤트 활용 지평선축제 홍보

축제 D-day마다 특별한 이벤트 제공 ... 오늘부터 5회 진행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평선축제 D-day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SNS(페이스북)을 활용, 홍보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제공한다.

D-88일인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축제 시작 전 D-day마다 5회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페이스북을 통한 댓글 달기, 사진업로드, 좋아요 누르기 등 지속적인 이벤트를 실시하여 축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불러나갈 계획이다.

또한 SNS 이벤트는 김제의 특산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하여 김제의 특산품을 홍보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제2회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장소,

프로그램 내용을 이벤트에 접목시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축제관심을 제공하고, 또한 다양한 이벤트 추진에 따른 축제 바이탈마케팅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벤트 경품으로 제공되는 김제 농특산물 홍보로 판매까지 이어져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역할을 기대해 볼만 하다.

한편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로 연속 선정된 김제지평선축제는 올해로 20회를 맞아 기존 축제의 틀을 벗어나 20~30대 젊은층의 흥미와 트렌드를 반영한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전환,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초등학교

연계 금연캠페인 실시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학교 흡연예방사업 일환으로 지역내 금연문화 확산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연계금연캠페인을 지난 28일 김제동초등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배웅나온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초등학교 일원에서 가두캠페인을 실시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캠페인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제작한 금연관련 문구를 넣은 티셔츠와 피켓, 포어등 다양하고 참신한 캠페인 소품들을 들고 나와 한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등 활기차고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로 학생들의 등굣길이 한층 더 즐거워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제2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마무리

김제시의회(의장 운주현)는 지난 28일 제2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15일 동안 진행된 이번 회기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이 의결되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결된 2018 회계연도 결산 내역은 세입 결산액 9223억원, 세출 결산액 6722억원이다. 결산 잉여금은 2501억원으로, 이월액(명시이월·사고이월 등) 1403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89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08억원에 달했다.

김제시 의회는 이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강조하며, 균형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예산의 정확성 추계가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악순환

을 막기 위해,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비용 산출을 요청하여 불용 예산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안 외에도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에서 수정가결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안(노규석 의원 발의)'이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지역 청소년들의 복리와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에서 심사한 '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은 전북도에서 조례 제정 추진 중인 월 5만원 지급 농민수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하고, 소상공인 등 타업종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결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